

# 檢亂 직전 한총장 용퇴... 파국 봉합될까

### 중수부 폐지 특수-기획통 괴리감 표출

### 검찰개혁 진정성 입증해야... 과제 산적

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위기가 전면적인 '검란(檢亂)'으로 비화되기 직전 가까스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이 보복성 감찰이라고 즉각 반발한 데 이어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대검 부장(김사장) 등 검찰간부들이 총장실에 찾아가 잇따라 용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 전체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검사장급 간부들부터 일선 초임검사들까지 개개인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한 총장이 결국 검찰간부들의 연이은 용퇴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사태는 겨우 진정되고 있다.

이날 오후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의 대상이 된 최재경 중수부장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구속)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감찰내용 공개를 놓고는 불씨가 남아있다. 또 최 중수부장이 총장의 지시를 받고 김 검사에게 비위내용을 알아본 것인데 역으로 감찰을 당했다는 불만도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이제 30일 오후 한 총장의 검찰개혁안 발표만을 남겨졌다. 한 총장은 개혁안을 내놓고 나서 곧바로 신임을 묻기 위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한 총장이 결국 조직을 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 총장의 사퇴와는 별도로 검찰 조직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깊은 내상'을 입었다. 우선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내부의 분열상이 드러났다.

중수부 폐지를 둘러싸고 특수통 검사의 말형 격인 최재경 중수부장과 기획통인 한 총장과의 '힘겨루기' 양

상도 펼쳐졌다. 한 총장이 직권으로 감찰을 지시하자 서울중앙지검·대검 등의 특수통 검사들이 가장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SK 최태원 회장에 대한 구형량 결정, LG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 결정 등에 한 총장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동안 기업 수사 때마다 총장의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며 쌓였던 불만을 일거에 터뜨렸다. 반면 기획이 '주특기'인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한 총장의 퇴진 요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부 검사들은 중간 정도 스탠스를 취했다.

내부의 분열과 함께 외부에 검찰의 치부가 고스란히 드러난 점도 부담으로 남게 됐다. 중수부장 감찰 사태 직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유대태 검사가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 평검사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총장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실수로 언론사 기자에게 보냈다가 공개됐다.

이 사건으로 '검찰개혁이 전부 쇼'라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한 총장의 개혁안 발표로 이후 험난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 특수-기획통 괴리감 표출

한국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이후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예상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이후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예상이었다.

중수부 폐지 특수-기획통 괴리감 표출



한상대 검찰총장이 30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사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18일 서초구 대검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대검찰청 최재경 중수부장. 오른쪽은 한상대 검찰총장. /연합뉴스

## “법무장관·중수부장 즉각 사퇴를”

### 野 법사위 단독소집 “최악 검봉사태” 성토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 검찰의 잇따른 난맥상을 성토하며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의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이날 회의에 응하지 않을 것에 대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선 후보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춘석 간사는 “검찰은 기대권을 어떻게 내려놓고 환부를 어떻게 도려낼지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 “검찰을 비교하라는 것인지 염려스럽다”고 공격했다.

최원식 의원은 “사상 최고의 ‘검봉’(검찰 붕괴) 사건을 맞아 국민도 ‘멘붕’이 됐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

는 국민의 관심사를 돌보지 않았다”는 “여민벌락”의 리더십으로 미래를 담담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법계 의원은 이번 사태를 전대미문의 국가운영 시스템 붕괴로 표현한 뒤 “검찰총장은 자리 보전을 위해 중수부 폐지라는 거짓된 말을 하고 중수부장은 중수부 존치를 하기 위해 총장더러 사퇴하라고 한다”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권력의 사유화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철철 의원은 “오늘의 검찰 난맥상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를 무시한 결과”라며 “검찰개혁을 실천할 주체는 개혁의 대상인 현 지휘부가 아닌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새 지휘부”라고 지적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공수처 설치 법안 발의 새누리 이재오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공직부패수사 또는 반부패정책업무에 종사한 자로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공수처 산하엔 3명의 특별검사를 두고 이 중 한 명은 차장의 역할을 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한-중 ‘北 로켓 대응’ 발빠른 행보

### 임성남 본부장 방중, 발사 문제 논의

### 中 선전부장 방북, 자제 요청 가능성

한국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이후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예상이었다. 한국의 새 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이후 한미 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예상이었다.

중국은 29일 류치마오 공산당 선전부장 겸 정치국원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 방북하는 중국의 고위급 인

사인 류 부장은 현안으로 떠오른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북측과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도 북한의 도발을 많이 불편해한다”고 언급, 북한의 도발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중국의 설득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기지 주변에서 분주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제 발사보다는 대미 협상을 염두에

둔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여전히 있다. 우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우리 측 6차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길에 올랐다. 임 본부장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 등 중국 인사들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다음달 초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규현 외교부 차관보도 최근 방미,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나 한반도의 평화로운 국제 질서와 대북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 주영순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 선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비례대표) 의원이 ‘2012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 생활환경과 국가 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 의원’은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지난 2006년부터 선정 발표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



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던 KT 펠라케이블의 지정 폐기물 사실을 밝혀낸데다 6년 이상 불법 오폐수를 방류한 남양주 화수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북 구미 불산 노출 사고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위험설비설치 기업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와 한국 잡월드와 공기 중 발암물질 검출 사실 등 환경 및 안전문제와 관련된 현안 문제를 제기, 대책을 촉구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환경과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들리는 생생한 환경 목소리를 국민께 전달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법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 국제결혼 40%가 재혼

### 10명중 6명 회사원·자영업자... 농촌총각 7% 불과

중개업체 등을 통한 국제결혼의 약 40%가 재혼이며 50대 이상 신랑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제결혼자 10명 중 6명이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자이며 농업이나 수산 및 축산업 종사자는 10명 중 1.4명에 불과해 국제결혼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한 국민 3만 2916명 중 과거 혼인경력이 있는 사람은 1만2816명(38.9%)이었다. 이 가운데 재혼이 1만22명(30.4%)이었으며 삼촌이 2292명(7.0%), 사

촌 398명(1.2%), 오촌 이상이 104명(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은 2만100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이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1만4604명(44.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자영업자 6434명(19.5%), 농업 2370명(7.2%), 전문직(자격증 보유자) 2238명(6.8%), 일용노동자 2110명(6.4%), 공무원 591명(1.8%) 순이었다. 수산업 및 축산업 종사자는 각각 336명(1.0%)과 312명(0.9%)에 불과했다. 전문가는 국제결혼이 과거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차원을 넘어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종형기자 golee@

##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만 조속히 처리해 달라”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9일 대전시 라미라호텔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여야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체신 대선공약 중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의정공천을 폐지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여야 당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의정공천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지원대책과 관련, 지난 22일 국회 복지위에서 국비보조율을 20%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으나 지원대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매를 배우고 수익을 원하는 /동호인 모집

1. 모집대상  
-처음으로 경매를 배우실 분  
-경매를 배우고도 수익을 못 내신 분  
-특수 물건과 부실채권에 관심이 있는 분  
-중자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분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하실 분

2. 특전(무료)  
-교재/프린트물  
-매월 회식/임강활동 참가  
-교육기간중 1인 1물건 추천  
-평생 교육/관리분석 혜택  
-본사 사무실 수시 이용

3. 교육기간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3개월 단위로 반복 순환식 스테디

4. 교육내용  
-지분물건 가장차인등 특수물건  
-NPL(부실채권)물건  
-실전사례 중심 스테디

5. 회비  
-현금 일시불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부동산 경매,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수기동 [근린시설 4층] 대652㎡, 건2387㎡ 감정가 14억 최저가 4억5천	숙박시설 [치평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나주남평 [주유소] 대4428㎡, 건553㎡ 감정가 10억6천 최저가 6억8천	신안암해 [횡정, 판매시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
전북김제 [물류센터] 대8076㎡, 건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전주시덕진구[유통주점] 대665㎡, 건988㎡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
화순이양 [공정] 대6536㎡, 건2056㎡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보성읍 [상가] 대685㎡, 건763㎡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충장로 [근린주택] 대215㎡, 건306㎡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목포대양동 [수양관] 대1786㎡, 건408㎡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북구 대촌동[2층공정]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감정가 39억8천 매매가 25억5천	화정동 [예산정]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감정가 41억5천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정]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감정가 99억4천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영암 [노인병원] 대지 2878평 > 건물 2209평 감정가 95억2천 매매가 27억3천
목포 상동[숙박시설] 대170평 건544평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여수학동[근린상가] 대136평 건513평 감정가15억 최저가 10억5천
무안 망운[숙박시설] 대257평 건346평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구례 용방[공정] 대1295평 건363평 감정가13억 최저가9억2천
화순 도곡(무인텔) 대1904㎡, 2,2628㎡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광산구 신창동[대지] 대150평 감정가8억4천 최저가6억1천
나주중앙동[근린상가] 대330평 건480평 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	서구 치평동[숙박시설] 대213평 건617평 감정가32억 최저가22억4천
광산구 월계동[상가] 대135평 건81평 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	북구 용진동[공정] 대700평 건423평 감정가22억7천 최저가14억6천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솔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한다.  
\* 찬모(여)2명, 설갯이(여)1명, 출서빙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습수시 면적, 상담가능(시간외) H.010-7570-7525